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유럽의 공연예술축제들

장지영 | 국민일보 문화부 기자

유럽에서는 지금 다양한 공연예술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세계 공연계의 흐름을 선도하는 축제가 바로 아비뇽 페스티벌이다. 관습이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해온 아비뇽 페스티벌의 명성에 걸맞게 이번 축제는 어느 해에 비해 실험적인 경향이 두드러졌다.



천사와 논란이 교차한 안 파브르의 <나는 피다>는 피에 대한 인간의 욕망, 즉 잔인함을 도발적으로 보여주었다. 지난해 독일의 토마스 오스터마이어에 이어 올해는 벨기에 안 파브르가 축제의 주빈으로 선정되었다.

중돼 있다. 게다가 이들 축제는 대부분 풍광이 수려한 시골, 유서 깊은 고도 또는 위대한 예술가의 고향에서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들 페스티벌에서 휴가와 공연을 한꺼번에 즐긴다.

여름에 열리는 유럽의 공연예술축제들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아비뇽 페스티벌(7. 8~27) 오랑주 페스티벌(7. 9~8. 6) 액상 프로방스 페스티벌(7. 8~30) 디나르 페스티벌(8. 6~21) 몽펠리에 댄스 페스티벌(6. 23~7. 5) 몽펠리에 음악 페스티벌(7. 16~30)을 꼽을 수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베로나 페스티벌(6. 17~8. 31) 토레델라고 푸치니 페스티벌(7. 22~8. 21) 라벤나 페스티벌(7. 19~8. 26) 페사로 로시니 페스티벌(8. 8~22) 마체라타 페스티벌(7. 15~8. 14) 등이 유명하다.

또 오스트리아에서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7. 25~8. 31) 브레겐츠 페스티벌(7. 20~8. 21) 인스부르크 고음악 페스티벌(7. 12~8. 27) 뢰르비슈 오페라 페스티벌(7. 13~8. 28) 장크트마르가르텐 오페라 페스티벌(7. 14~8. 28)이 열리고 독일은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7. 25~8. 28) 뮌헨 오페라 페스티벌(6. 28~7. 31)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스위스의 루체른 페스티벌(8. 11~9. 18)과 취리히 오페라 페스티벌(6. 17~7. 10) 그리고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8. 14~9. 4)과 런던 BBC 프롬스(7. 15~9. 10)가 유명하다(괄호 안의 날짜는 올해 열리는 축제 일정이다).

축제의 특징을 보면 연극·무용·퍼포먼스가 중심인 아비뇽 페스티벌과 에딘버러 페스티벌 그리고

여름의 유럽 대도시는 향기가 없다.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 등 주요 공연장들이 시즌을 마감하고 문을 닫기 때문이다. 유럽 공연계 시즌은 대체로 9월에 시작해 이듬해 5월에 막을 내린다. 하지만 극장들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이 기간에 공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다. 바로 6, 8월 사이에 곳곳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공연예술축제다. 물론 피렌체 5월 음악제나 프라하 봄 페스티벌처럼 여름이 아닌 시기에도 축제가 열리지만 권위 있는 공연예술축제는 대개 여름에 집

로미오 카스텔루치의 〈B, #03 베를린〉

오른쪽 페이지
빔 반데키부스가 이끄는 울티마 베즈
무용단의 〈순수〉



LUCA DEL PIA

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몽펠리에 댄스 페스티벌을 제외하면 모두 음악축제다. 그리고 나머지 축제 가운데서도 루체는 페스티벌이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라벤나 페스티벌처럼 종합음악축제를 지향하는 축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페라가 중심을 이룬다. 특히 페사로 로시나 페스티벌, 토레텔라고 푸치니 페스티벌 그리고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은 작곡가의 고향에서 열리는 축제답게 해당 작곡가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린다.

이들 공연예술축제는 우리같은 비유럽인에게 유럽의 고급문화를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즌 중에 보기 힘들거나 드문드문 있던 프로그램이 페스티벌 기간에 모두 모이기 때문이다. 뮌헨과 취리히 페스티벌의 경우 시즌동안 무대에 올랐던 오페라 가운데 주목받은 공연을 뽑아서 보여주고 다

른 페스티벌은 주로 신작을 선보인다.

이 때문에 유럽의 공연예술축제는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몇몇 권위 있는 페스티벌은 시즌 때의 극장 공연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바그너의 직계 후손들이 이어가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경우 젊고 창의력 있는 연출가들을 적극 영입해 1970년대 오페라계를 연출가의 시대로 만드는 수훈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에 서는 유명 연주자들과 성악가 역시 말도 안 되는 개런티를 받고도 영광이라고 생각할 만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높은 권위를 자랑한다.

공연예술의 첨단을 선도하는 아비뇽 페스티벌

하지만 세계 공연계의 흐름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아비뇽 페스티벌'은 다른 공연예술축제의 선두에 있다.

아비뇽 페스티벌이 열리는 아비뇽시는 남부 프랑스 론강변에 자리잡은 소도시. 1309년부터 68년 동안 프랑스 국왕의 간섭 아래 로마 교황이 억류됐던 '아비뇽의 유수' 그리고 20세기 현대미술의 개념을 바꾼 피카소의 첫 입체파 그림 '아비뇽의 처녀들'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하지만 요즘은 명실공히 세계 공연계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으뜸인 '아비뇽 페스티벌'로 더욱 알려져 있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1947년 9월 연극배우이자 무대감독인 장 빌라(Jean Vilar, 1912~1971)가 '아비뇽에서 예술의 주간을'이라는 기치 아래 교황청 안마당에서 3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시작됐다. 지금은 대개 7월 한 달간 열리며 페스티벌 사



무국에서 선정한 공연 30여 편을 선보인다.

연극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연극이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1964년부터는 영역을 무용, 뮤지컬, 현대음악 등까지 넓혔다. 또 요즘에는 시, 미술 및 연극사 전시회, 비디오아트에 이르기까지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과 전통적인 오페라는 프랑스 안에 전문 페스티벌이 여럿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페스티벌 사무국이 밝힌 연간 예산은 1,000만 유로(한화 125억 원). 이중 60%는 중앙정부와 도·시 등 지자체에서 지원받으며 35%는 티켓판매 수익, 5%는 기업의 지원을 받는다. 사무국에는 20명의 상주 스태프가 있으며 축제기간에만 600여 명의 임시 직원을 고용한다. 그리고 공연장으로는 시립극장 외에 교향청, 성당, 수도원, 성, 학교 중정과 체육관, 채석장 등 아비뇽시의 다양한 공간을 사용한다.

축제가 열리는 한쪽에서 '더 오프(The OFF)'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본 페스티벌과 무관하게 열린다. 하지만 OFF에 빔대 본 페스티벌을 'IN' 이라고도 부른다. 누구라도 작품을 공연할 장소가 있으면 시청의 허가를 받은 뒤 오프 페스티벌 사무국에 참

가비를 내고 공연할 수 있다. 대개 지하실을 개조한 곳부터 카페, 광장 등 천차만별인데, 올해의 경우 참가작 수가 무려 800편에 이른다. 그동안 아비뇽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국 작품은 1998년 아비뇽 페스티벌 축제 사무국이 대만과 함께 '한국의 밤' 행사 때 초청한 전통 무용 및 국악 공연을 제외하면 모두 OFF였다.

공연예술의 첨단을 선도하는 축제답게 IN 작품 상당수가 월드 프리미어(세계 초연)이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른 도시의 극장이나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연계 스타 산실로도 유명해서 극작가, 연출가 그리고 배우들이 새롭게 발굴된다. 이 때문에 아비뇽시 자체는 인구가 10만 명도 안되지만 축제 기간에는 세계 각국의 아트 디렉터, 프로듀서 등 공연계 관계자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약 50만 명 다녀간다.

새로운 춤의 패러다임 창조자, 안 파브르

지난 7월 8일 막을 올린 제59회 아비뇽 페스티벌(7월 27일 폐막)은 위와 같은 평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번 축제는 20년 넘게 예술감독을 역임



MARCUS LIEBERENZ/AGENCE ENQUERAND

한 베르나르 페브르 다르시에를 이어 2003년 예술 감독이 된 뱅상 보드리에(37)가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자리였다.

예술 감독 뱅상 보드리에는 한 예술가를 축제의 주빈으로 선정하고 그의 작품들과 비슷한 계열 예술가들의 작품을 집중 선보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의 토마스 오스터마이어에 이어 올해는 벨기에 안 파브르(47)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2006년에는 조셉 나주, 2007년에는 프레데릭 피쉬바흐가 예정돼 있다.

올해 아비뇽 페스티벌의 주빈인 안 파브르는 현재 서구 공연계에서 전위적이고 도발적인 작품으로 유명한 인물. 우리에게 ‘파브르 곤충기’로 잘 알려진 과학자 앙리 파브르의 손자기도 하다. 화가 겸 조각가에서 출발한 그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여러번 초청되는가 하면 지금도 시각예술 분야에서 만만치 않은 작업을 해오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표현 수단을 공연으로 확장시킨 그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접목시킨 ‘비주얼 시어터’의 창시자로 연극, 무용, 음악 등 장르간 구별이 모호해진 서구 공연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에

서 유럽으로 중심을 옮긴 세계 무용계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무용은 조지 발란신과 머스 커닝햄으로 대표되는데, 이 두 사람의 무대는 춤을 위한 춤 그 자체였다. 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순수 그 자체의 춤이었다. 이들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추상적인 미의 세계를 추구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등장한 피나 바우쉬의 탄츠테아터는 개인이든 사회든 역사적인 맥락을 명확히 가지며, 뒤를 잇는 유럽 안무가들 역시 춤 안에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미국 출신이지만 유럽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윌리엄 포사이드와 존 노이마이어 역시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안 파브르의 경우 한걸음 나아가 유럽의 문화와 역사에 뿌리를 둔 작품 안의 텍스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안 파브르, 안 라우어스 등 시각예술에서 출발해 무용예술에 헌신한 사람들은 강력한 이미지를 구현해 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예전에 시각예술 분야에서 일었던 “과연 저것이 예술인가 아니가?” 하는 논쟁이 무용 분야로

권위 있는 공연예술축제는 대개 여름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이들 축제는 대부분 풍광이 수려한 시골, 유서 깊은 고도 또는 위대한 예술가의 고향에서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들 페스티벌에서 휴가와 공연을 한꺼번에 즐긴다.

위 · 올리비에르 피의 <les Vainqueurs>
아래 · 안 파브르의 <눈물의 역사>

왼쪽 페이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의 <폭발>



ALAIN FONTERAY



옮겨진 것. 즉 이들의 작품은 “과연 이것이 춤인가? 예술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찬사와 논란이 교차한 실험작들

이번 축제에는 개막작인 <눈물의 역사(The history of tears)>를 비롯해 <나는 피다(I m Blood)> 등 공연 4편과 전시가 선보였는데, 매 작품마다 찬사와 논란이 교차했다.

한국 예술의전당이 공동 프로듀서로 참가해 내년에 서울에서도 공연될 <눈물의 역사>는 인간의 눈물과 관련된 이미지를 무대에 구현한 것. 수백여 개의 유리그릇과 수십여 개의 사다리 오브제, 10여 명의 무용수가 15분 가까이 울음을 터뜨리는 첫 장면부터 20여 명의 무용수가 나체로 등장해 무대를 뛰어다니는 장면 등 워낙 표현방식이 도발적인 이 작품은 이번 축제에서 가장 논란이 됐다. 극단적인 표현에 부담스러운 관객들은 상당수 공연장을 빠져나가다가 하면 공연이 끝난 후 기립박수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나는 피다>는 피에 대한 인간의 욕망, 즉 잔인함을 도발적으로 보여준 작품으로 표현 수위에 있어서는 <눈물의 역사>를 능가한다. 남성의 옷을 벗긴 뒤 피를 바르고 성기를 절단하는 장면부터 웨딩스레스를 입은 20여 명의 무용수들이 온몸에 피를 묻힌 채 “나는 피다”를 외치는 장면 등 무대가 온통 피범벅이다.

이외에 한국에서도 공연을 가진 적 있는 빔 반데 키부스가 이끄는 울티마 베즈 무용단의 <순수>, 로미오 카스텔루치의 <B.#03 베를린> <BR.#04 브뤼셀>, 조셉 나주의 <마지막 풍경> 등이 올려졌다. 또 올해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 <인형의 집>,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에 초청된 <리퀘스트 콘서트>로 한국 관객에게 낯익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가 요절한 천재작가 사라 케인의 <폭발(Anéantis)>을 선보였고 무용계의 거장 윌리엄 포사이드가 <너는 나를 피물로 만들었다>,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바이오그래피 리믹스> 등을 공연했다.



GALERIE CENT 8, PARIS / MNAC / FONDUS NATIONAL D'ART CONTEMPORAIN



STEFAN OKOLOWICZ

한편 1980년대 후반 안 파브르, 안 라우어스 등 시각예술에서 출발해 무용예술에 헌신한 사람들은 강력한 이미지를 구현해 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즉 이들의 작품은 “과연 이것이 춤인가? 예술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종합음악축제가 열리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왼쪽 페이지

위 ·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바이오그래피 리믹스〉

아래 · 크리스토프 바리코우스키의 〈Kroum〉



현대예술의 문을 활짝 열다

이번 축제는 어느 해에 비해 실험적인 경향이 두드러진 탓에 축제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프랑스의 「르 몽드」같은 신문은 이번 축제에 대해 “플라망드(벨기에)로 향한 아비뇽”이란 타이틀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감독인 뱅상 보드리에는 “아비뇽 페스티벌은 현대예술에 문을 활짝 열어 왔으며 특히 새로운 공연의 형태와 언어를 창조하는 장으로

서 관객을 자극해 왔다”면서 “이번 축제를 둘러싼 논란은 아비뇽 축제로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비뇽 페스티벌의 지향점을 ‘열기(OPEN)’라는 말로 설명한 뱅상 보드리에는 “세계 공연예술계에서 아비뇽 페스티벌의 비중이 있다면 그것은 관습이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해 왔다는 데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은 위험부담이 크지만 아비뇽 페스티벌은 예술가와 함께 이런 위험을 부담했고 관객 역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축제에 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5편의 작품이 올해 한국에서 선보인 데서 알 수 있듯 세계 공연계의 트렌드를 살피기 위해 한국 공연계 관계자들이 이 곳에 많이 왔다. 손진책 극단 미추 대표, 김광립 서울공연예술제 예술감독, 안신희 현대무용협회장, 고회경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양정웅 극단 여행자 대표, 민복기 극단 차이무 대표 등 무려 20여 명이다.

프랑스통인 최준호 예술의전당 예술감독은 “올해 아비뇽 페스티벌은 장르간 혼종이 두드러지는 최근 공연계의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내년 초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될 〈눈물의 역사〉가 한국에서 이런 흐름과 그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